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4. 04. 25(금), 1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김학범, 류제헌, 박양우,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은희,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광한루원」 인근 남원예촌 조성사업	공개
2	「밀양 월연대」 일원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개
3	「홍도 천연보호구역」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관련 선형조정 지반조사	공개
4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내 교량 설치 등 도로 개설	공개
5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세대주택 개축	공개
6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해송림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	공개
7	「부산 영도 태종대」 문화재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공개
8	「부산 오륙도」 주변 이동식 화장실 설치	공개
9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내 의림지천 소하천시설 개량사업	공개
10	「봉화 청량산」 내 전망데크 설치	공개
11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개
12	「예천 회룡포」 지정 구역내 레포츠 대여점 운영	공개
13	「장성 백양사 백학봉 일원」 내 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	공개
【검토사항】		
14	「창녕 문암정」 명승 지정 검토	공개
15	「독도 천연보호구역」 입도횟수 확대 검토	공개
16	「양주 양지리 향나무」 문화재 명칭 변경 검토	공개
【보고사항】		
17	울주 반구대 암각화 인근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 보고	공개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심의사항】

천기 2014-04-01

1.「광한루원」 인근 남원예촌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광한루원」 인근 남원예촌 조성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광한루원」 인근 남원예촌 조성사업을 하고자하는 사항임.

〈참 고〉

- 2014. 3. 27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4. 4. 16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남원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 소 재 지 : 전북 남원시 고샘길 56 외 43필지

○ 지 정 일 : 2008. 1. 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광한루원」 인근 남원예촌 조성 사업

○ 사업위치 : 전북 남원시 고샘길 ** 외 43필지

○ 사업내용

- 다목적동, 한옥생활체험관 및 기타 부속동(총 17동) 건립
- 건축규모 : 대지면적 11,111㎡, 건축면적 1,670.21㎡, 연면적 1,670.21㎡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5.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8m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 12m이하 다만,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라. 검토의견 (******)

o 광한루원 경계밖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높이 역시 1층으로 설계되어 명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건물형태 및 색상은 광한루원과 조화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1)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14.3.12)**

o 남원 예촌 조성사업은 광한루와는 별도의 시설이므로 현재 차도로 이용하는 동선은 보행로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분리되어야 함

o 보행로 주변에는 큰나무를 심지 말고 초본류, 관목류 등으로 식재하여 조경

o 이미지는 광한루와 조화되도록 조성 필요

(* 문화재위원, '14.3.12)**

o 담장 인접 도로를 폐쇄하고 녹지화 하는 것은 별 문제없으나 광한루원과 새로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한옥 구역을 하나로 만들어 전체가 문화재로 보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o 담장과 붙어 있는 보행로의 기능은 최소한 유지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본건은 광한루 옆에 남원예촌 사업을 하는 건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됨. 그러나 현재로서는 규모가 커서 광한루정원의 느낌이 왜소해지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우려됨.

○ 따라서 전체 건물규모의 조정, 다목적관의 높이와 규모 축소, 담장의 설치 위치조정, 광한루원과 별개의 영역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차폐식재 등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천기 2014-04-02

2.「밀양 월연대」일원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밀양 월연대」일원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시 부과한 허가조건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밀양 월연대」일원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 조건부 허가사항('13.11.27) 재심의 하고자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13. 10. 23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3. 11. 7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실시
- 2013. 11. 27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

- 하천 정비공사중 하천 준설 및 절토사업 보류
- 따라서 호안공사업의 하나인 게비온 메트리스 사업 보류
- 보류된 사업은 남기지구 한천정비사업 심의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용평동2-1일원

○ 지 정 일 : 2012. 2. 8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등

○ 사업내용

- 축 제 공 : L=1,411m
- 호 안 공 : L=2,291m(식생블럭 L=1,411m, 게비온매트리스 L=880m)
- 하도정비공 : L=880m(절토 121,533㎥)
- 하천환경정비공 : L=880m(준설 54,000㎥)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2016. 10.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및 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라. 검토의견 (******)

○ 동 안건은 지난해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가결 현상변경허가를 해준 사항이나, 신청인은 준·절토를 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고 게비온매트리스 사업도 친환경적으로 시행하면 큰 문제가 없으므로 조건 해제를 요청해온 사항으로 일부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마.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03

3.「홍도 천연보호구역」홍도항 동방파제 축조 관련 선형조정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중 선형조정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홍도 천연보호구역」내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중 선형조정을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는 2014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4.1.22.)에서 내연발전소 등 해안부분 보강사항 및 방파제 상부 시설물 설치 등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허되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 지 정 일 : 1965.4.7.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 중 선형조정 지반조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전면해상

○ 사업내용 : 지반조사 실시

- 시추조사 5개소 천공(수중 15m 뻘층 / 직경 76mm)
- 표준관입시험 53회(1.5m 간격), 피에조콘관입시험 2회
- 퇴적점성토 및 사질토 교란시료 채취(16㎥), UD시료 채취 9회

※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홍도항 통항선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파제 선형조정이 불가피하여, 설계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 요청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2014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방파제 선형조정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 前 문화재위원>

○ 본건은 2014년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한『홍도 천연보호구역』내「홍도항 동방파제 축조」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동파제 150m 축조를 전제로 한 선형조정을 위한 지반조사임

○ 해상교통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방파제 선형조정을 위한 지반조사는 시추조사로 5개소를 천공(穿孔, 직경 76mm, 수중 15m)하여 토질시료 채취, 지질구조 분석 등 설계 및 시공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지반조사(천공)로 천연기념물의 경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되나,「홍도항 동방파제 150m 축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홍도항 동방파제 150m 축조」시 천연보호구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조감도와 기본설계도, 주민의견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절차적으로 방파제 선형조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04

4.「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내 교량 설치 등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내 교량(강정3교) 설치 및「제주 강정동 담팔수」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민간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내 교량설치 및 「제주 강정동 담팔수」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2013년 제6차('13.6.26) 및 제7차('13.7.24)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도로개설 계획(선형)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장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544호 제주 강정동 담팔수

○ 소 재 지 :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강정동 5647

○ 지 정 일 : 1964.1.31 / 2013.4.16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강정3교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번지 외

○ 사업내용

- 도로개설 : 연장 2km, 폭 15.5~25.5m(양방향 2~4차로)
- 교량설치 : Beam 교량(길이 55m, 폭 25.5m, 시공방식-PSC 거더교)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2013년 제6차 및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 개설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천연기념물 보존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 '14.4.18)

○ <*** 문화재위원>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녹나무자생지 및 담팔수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 내용임
- 당초 1차 신청에서는 동서 직선(종단)으로 계획되면서 녹나무 자생지 훼손이 심하여 불허된바 있었고, 2안으로 녹나무 자생지 통과 없이 계류를 따라 북동쪽 초등학교 옆으로 진입되는 코스가 검토되기도 함
- 그러나 제2안은 도로의 폭이 확보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쪽 기존도로와 연결지점에서 교통안전상 무리한 점이 있어 3차로 위치를 재조정하여 신청하게 된 배경이라 함(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
- 3차 계획인 녹나무 자생지 통과지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교량이기 설치되어 있고 교량좌우 100m내외까지는 상록수림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위치는 기존교량과 별도로 인접한 위치로 통과됨
  - 기존교량을 해체하고 동일 위치에서 통합설치 가능성을 질의한바 있으나 교량의 용도상 높낮이가 서로 다르고 안전상 직각 통과가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견해임
- 따라서 진입도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녹나무 자생지 통과가 불가피 한 점을 전제한다면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위치로 판단되나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함
- 참고로 동 진입도로는 교량 외 개인토지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일부 주민과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향후 과제라 할 수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4-04-05

5.「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주택 개축

가. 제안사항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다가구주택 개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주변 다가구주택 개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제2차 천기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이후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번지 등 7필지 지선 공유수면

○ 지정일 : 2004. 4. 9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주택 개축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

○ 사업목적 : 기존 1층의 다가구주택을 동일한 층고로 소매점과 다가구주택으로 개축

○ 사업내용

구분	기존건축물 현황	증축계획(변경전)	증축계획(변경후)
용도	○ 가동 : 단독주택(2층) ○ 나동 : 다가구주택	○ 가동 : 단독주택(2층, 변동 없음) ○ 나동 : 소매점(1층) 및 다가구주택(2층)	○ 가동 : 단독주택(2층, 변동 없음) ○ 나동 : 소매점 및 다가구주택(1층)
규모	○ 가동 : 연면적 99.86㎡ ○ 나동 : 연면적 199.31㎡/건축면적 199.31㎡(1층)	○ 가동 : 연면적 99.86㎡ ○ 나동 : 연면적 198.64㎡(2층) - 1층 바닥면적 : 54.32㎡ - 2층 바닥면적 : 144.32㎡	○ 가동 : 연면적 99.86㎡ ○ 나동 : 연면적 195.24㎡/건축면적 236.47㎡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약 50m(허용기준 상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기존 건축물의 층고, 건축면적 및 연면적 이내로만 개축할 경우에는 홍조단괴 해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 건은 2014년 제 2차 회의에서 부결된 건으로 층수를 변경하여 재신청한 건임(당초 부결 사유: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예정인 지역임으로 홍조단괴 해빈 주변 지역의 원형을 가능한 보존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 지형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과도한 증축 제한)

○ 이번 신청은 개축 건물의 층수를 2층에서 기존 건물의 층수와 동일한 1층으로 낮추어 신청하였으나, 층고는 기존 건물의 층고(4.2. m)보다 1.2m 높은 5.4m로 신청되었음

○ 따라서 제 2차 회의 시의 부결 사유와 동일하게, 이 지역의 원지형을 보존해야 하는 측면에서 층고를 기존건물과 동일한 4.2m로 낮추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개축 건물과 연접해 있는 기존 건물이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고, 개축 대상 건물 또한 경사 지붕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축건물 또한 경사지붕으로 건축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 사업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438호(2004.04.09.)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제1구역으로써, 원지형 보존지역이며, 기존 시설물 개·재축만 허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재축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축되어야 함.

바. 참고자료(**<***> **)**

○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홍조단괴 해빈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심의대상구역안의 건축물 개축공사임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기존규모의 재개축 공사로 연면적은 당초보다 감소하나 건축허가 시 출입을 위한 바닥테라스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건축면적은 증가함

사.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06

6.「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해송림 피해지역 복구 조림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해송림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주변 해송림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주변해역

○ 지정일 : 2009. 9. 8

(3) 신청내용

○ 사업명 : 사계 해송림 피해지 복구 조림사업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 외

○ 사업목적 : 지속적인 염해 및 재선충피해로 인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임지에 대하여 비사방지, 방풍기능을 위한 사방림 복구조림시행

○ 사업내용

○ 사업내용 (2개년 시행)

▶ 2014년 식재 계획 : 3종 2,200본(3ha) / 사업비 50,000천원

- 까마귀쪽(H 1.0) 600본, 우묵사스레피(H 0.8) 800본, 돈나무 800본(H 0.6)

▶ 2015년 식재 계획 : 3종 2,200본(3ha) / 사업비 50,000천원

- 까마귀쪽(H 1.0) 600본, 우묵사스레피(H 0.8) 800본, 돈나무 800본(H 0.6)

(4) 문화재와의 거리 : 보호구역 내 및 제1구역

라. 검토의견(******)

○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주변에 위치한 해송림 피해지에 대해 고유수종으로 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화석산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및 **조사)

<*** 문화재위원(****)>

○ 해송림 복구 조림사업 예정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구지역으로써 원지형 보존지역임.

○ 사구지역의 해송림은 농경지 보호를 위한 비사방지와 방풍기능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림한 것으로써, 해송림 서쪽의 넓은 평지는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지를 만들어 놓았음.

○ 따라서 해송림 지역을 자연상태의 사구로 복원(해송림 제거)하였을 경우,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가 없다면 사구로 복원하는 것도 바람직함.

○ 계획대로 조림사업을 시행한다면 반드시 관련 전공자(식물학자)의 의견을 받아야 함.

<*** 문화재위원(4.18 현지조사)>

○ 수령 30년 내외의 해송이 우점종(優占種)을 이루고 있는 해구(海丘)로 최근 염해(鹽害) 피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지난해에는 재선충 피해로 의심되는 고사목까지 발생하였다고 함

○ 도로 가까이는 해송과 일부 활엽수를 식재한 곳이 있고, 본 식재대상지는 최근 고사목 벌채지로 1,000㎡내외의 나지(裸地)이나 재선충 피해지역이므로 규정상 해송을 다시 식재할 수 없다는 의견임(서귀포시 산림과)

○ 그러나 피해상태(소규모, 바다인접지 집중 등)로 보아 재선충 피해로 단정하기 어렵고 재선충피해라 하더라도 과밀한 기존 해송림의 간벌 등 건강한 상육상태의 유지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재대상 수종 중 가마귀쪽나무는 상록활엽소교목으로 해풍이 미치는 해변가에서 잘 자라나 기존 소나무와는 이질적인 수종이며, 특히 한곳에 집중(군식)되면 더욱 돌출되는 경관이 우려됨. 또한 우묵사스레피는 2~3m로 자라는 관목으로 내조성은 강하나 양수이며, 돈나무 역시 우묵사스레피와 비슷한 조건이라 하층식생으로는 접합치 못함

○ 기존 해송림에는 밀도가 높아 하층식재가 어렵고 한정된 구역에 가마귀쪽나무 28%, 우묵사스레피 36%, 돈나무 36%혼식은 한정된 공간에 수종갱신의 성격이라 주변경관과는 이질감이 높고, 이식률도 높기 어려운 조건임

○ 따라서 본 대상지는 땜질식 수목식재보다는 기존 해송림의 관리(간벌 등)를 우선하고 재선충병 등의 변동상황을 지켜본 후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종합 계획이 수립된 후 단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07

7.「부산 영도 태종대」문화재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영도 태종대」문화재구역 내 태종대유원지 순한도로변 안전시설 설치공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산 영도 태종대」문화재구역 내 태종대 유원지 순환도로변 안전시설 설치공사사업을 하고자하는 사항임.

〈참 고〉

- 2014. 3. 27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4. 4. 16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7호 부산 영도 태종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29-1

○ 지 정 일 : 2005. 11. 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부산영도 태종대」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종대 유원지 순환도로변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 업 명	변경내용(사업규모)	
	변경전	변경후
안전시설(휀스) 및 연식의자설치	- 안전휀스 500m ① L=198m ② L=60m ③ L=50m ④ L=50m ⑤ L=120m ⑥ L=22m - 연식의자 100m	- 안전휀스 360m(△140m) ① L=80m ② L=60m ③ L=50m ④ L=50m ⑤ L=120m ⑥ L=0m - 방호난간107m(높이 40cm) ① L=85 ② L=22 - 연식의자 100m, ・급경사지 안전휀스설치 ・방호난간미설치 구간설치 ・연식의자 현장여건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이격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번지 일원(순환도로변)
○ 사업내용 : 방호난간 107m, 안전휀스 360m, 연식의자 100m
* 안전휀스·연식의자는 현장여건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으로 이격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라. 검토의견 (******)

○ 문화재 지정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 현지조사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14.4.16.)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건은 태종대 순환도로변의 보행자 추락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휀스와 휴식용 연식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임.
○ 태종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추락시 부상이 크게 우려되는 급경사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방호의 목적으로 안전펜스 또는 방호벽의 부분적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신청된 안전펜스 설치 구간이 부분적으로 과도하여 일부 완경사지 구간과 주변 경관에 미칠 수 있는 구간, 식생 연접 구간등에 대해서는 안전펜스 설치구간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방호벽과 동일한 높이와 형태의 방호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식의자 설치구간의 경우 시각적 답답함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단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본건은 대종대유원지 순환도로변 방호난간(H:0.4~0.5.m)높이가 낮아 안전추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안전난간(H:1.2.m)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임
○ 현지조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었음. 다만, 계획하려는 구간 전체를 높이 1.2.m의 난간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시설해야될 부분 하지않아도 될 부분, 축소해서 시설해야할 부분 H0.4~0.5m의 방호난간 정도로 설치할 부분으로 적절하게 시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4-04-08

8.「부산 오륙도」주변 이동식 화장실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오륙도」주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앞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산 오륙도」주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앞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안임.

〈참 고〉

- 2014. 3. 27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4. 4. 16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137

○ 지 정 일 : 2007. 10. 1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부산 오륙도」 주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앞 이동식 화장실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이동식 공중화장실(수세식) 신축

- 대지면적 2,506.2㎡, 건물연면적 31.90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6. 30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150m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 ~ 2구역 인접

라. 검토의견

(******)

○ 현지조사 결과 당초 신청부지가 부적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해파랑길 안내소'건물 뒤편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짐

(***)**

○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광안내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추가설치가 절실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14.4.16.)

(* 문화재위원)**

- ○ 오륙도 해안의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화장실 수요 증가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임.
- ○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 위치가 오륙도 주변 해안의 조망 위치에 해당함으로 설치 위치를 오륙도 해안의 조망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 ○ 변경 안으로 기존 해파랑길 안내소 맞은 편의 절도면을 배후로 하는 지점에 절토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시함.

(* 문화재위원)**

- ○ 오륙도 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시설됨에 따라 관광객 숫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 이동식 화장실의 추가 배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설치위치는 오륙도 경관이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로 인해 잘 노출되지 않는 주차장 입구 좌측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천기 2014-04-09

9.「제천 의림지와 제림」의림지천 소하천시설 개량사업

가. 제안사항

「제천 의림지와 제림」문화재보호구역 의림지천 소하천 시설 개량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천 의림지와 제림」문화재보호구역 의림지천 소하천 시설 개량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제천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0호 제천의림지와 제림

○ 소 재 지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

○ 지 정 일 : 2006. 12. 4.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의림지천 소하천 시설 개량 사업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 일원

○ 사업내용 : 자연석호안(86m) / 자연형 여울 2개소 / 준설 및 식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5개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64m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기존 건물 동일범위내 개.보수)

라. 검토의견 (******)

o 당초 콘크리트보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자연석 호안으로 변경 신청된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임.

마. 참고자료(**** **)

○ 의림지천 소하천 주변지역 임야의 토사가 유입되어 의림지로의 토사가 퇴적되므로 임야의 붕괴 및 토사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미정비된 호안을 정비하여야하며

○ 낙차보 자연형 여울 설치에 따른 상류토사의 의림지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호안주변 수생태 서식환경 조성을 하려는 사업임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10

10.「봉화 청량산」내 전망데크 설치

가. 제안사항

「봉화 청량산」내 신규 개설된 장인봉 ~ 안내소 구간내 곳에 전망데크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봉화 청량산」내 전망데크 설치 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봉화군수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1번지 외

○ 지 정 일 : 2007. 3. 13.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장인봉~안내소 구간 전망데크 설치 공사

○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 사업내용

- 전망데크 설치 : A=65.2㎡(조립식 목재데크)
- 주요자재 : 천연목(이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6. 30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문화재정 지정 구역내에 신규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 신규 개설된 장인봉~안내소 구간 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아름다운 청량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허가 요청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04-11

11.「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송기석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 지 정 일 : 2004. 11. 17.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

○ 사업내용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종묘사업소(총 11동)상부에 태양광 모듈 설치

- 면적 : 4,374.3㎡ , 구조 : 철골구조, 최고높이 : 5.56m, 용량 : 600kw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6. 6. 30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문화재정 지정 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시 명승 경관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마. 참고자료(**** **)

o 본 사업은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요한 환경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문화재지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 모듈의 설치 규모가 크고 태양광 모듈의 특성상 빛이 반사되는 재질로 인근 지역의 심각한 경관 저해 등이 우려됨.

바.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12

12.「예천 회룡포」지정 구역내 레포츠 대여점 운영

가. 제안사항

「예천 회룡포」지정 구역내 자전거, 전기스쿠터, 사륜바이크 대여점 운영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예천 회룡포」지정 구역내 자전거, 전기스쿠터, 사륜바이크 대여점 운영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회룡포마을 주민회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6호 예천 회룡포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등

○ 지 정 일 : 2005. 8. 23.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자전거, 전기스쿠터, 사륜바이크 대여점 운영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번지

○ 사업내용 : 자전거(10대), 전기스쿠터(10대), 사륜바이크(30대)대여점 운영

- 자전거, 전기스쿠터 : 캠핑장 입구에서 출발 → 농로를 따라 마을을 한바퀴 돌아옴

- 사륜바이크 대여 : 제1뽕뽕다리 건너편 모래사장에서 출발 → 올레길 아래 모래사장 길을 왕복 운행함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6. 30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문화재정 지정 구역으로서 대여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천기 2014-04-13

13.「장성 백양사 백학봉 일원」내 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장성 백양사 백학봉 일원」내 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장성 백양사 백학봉 일원」내 기존 데크 및 안전시설을 철거하고 절벽 낭떠러지와 이격하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장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일원

○ 지 정 일 : 2008. 2. 5.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내장산백암 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약사암～백학봉 급경사지

○ 사업내용 : 탐방로 데크 및 안전시설 설치

구 분	규 격	비고
데크철거, 설치	B=1.5m, L=103m	위험지구 안전거리 확보
목재난간 설치	H=1.1m, 30경간	위험지구 출입 통제
안내표지판 설치	K형 2개소	위험지구 안내
데크 도색	오일스테인 246㎡	시설 내구성 향상
헬기운반	형강, 판재 등 32ton	산악 운반
관급자재	데크판재 257㎡	설치자재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4. 12. 31일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백학봉 급경사지 구간에 낙석 및 낙빙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와 시설 파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검토사항】

천기 2014-04-14

14.「창녕 문암정」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창녕 문암정」명승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창녕 문암정」명승 지정 검토 사항임.

○ 추진경과

- 2014. 4. 경상남도 지정 신청
- 2014. 4. 지정조사 실시(김학범・류제헌 문화재위원, 서치상 문화재전문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상남도지사

(2) 신청내용

○ 문화재명 : 창녕 문암정 일원

○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번지 외 6필지

○ 면 적 : 48,992㎡

(3) 대상문화재 현황

○ 신초(1549~1618년)가 말년을 소요하기 위해 조영한 정자이며, 1800년대 대문채와 영정각의 증축이 이루어짐.

○ 문암정 일원은 정자와 신초 유허비, 영정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은 송림과 남쪽은 계성천, 절벽위의 배롱나무군 등이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음

○ 문화재자료 제25호 문암정, 비각, 신초의 영정(1983.8.6, 지정)과 기념물 제149호 사리배롱나무군(1995.5.2, 지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신씨 문중에 의해 수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문화재 현황

-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소 유 자 : 영산신씨 문중)
  - 문암정, 비각, 신초의 영정(지정년월일 : 1983. 8. 6. 경남 창녕)
- 경남도 기념물 제149호(소 유 자 : 영산신씨 문중
  - 배롱나무 35주(면적 600㎡)(지정년월일 : 1982. 5. 2. 경남 창녕)

1. 입지환경

가. 입지

o 문암정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산 10번지로 마을입구 계류가에 약 20m 높이의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자의 입지는 '문암충의록'(1751년) 기록에 의하면'영산현 북쪽 10리 거리에 옥천동이 있다. 큰 내가 화왕산에서 발원하여 30리를 흘러가서 낙동강과 합류하고, 태산(胎山)은 화왕산과 마주서서 시내 위에 솟았는데, 기암괴석이 깎아 세운 듯,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신의 조화로 보인다.'로 기록되어 있으며 화왕산 줄기의 태산을 배산으로, 관룡산과 화왕산에서 발원한 계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안산으로는 영취산에서 발원한 굴미산이 문암정과 마주하고 있는 계류에 인접한 임수형 별서이다

o 완산 이정철(李廷喆)의 문암정기(聞巖亭記, 1893)에 의하면

영산(靈山)에 바위가 어찌 한 정이 있으리요. 단지 문암(聞巖)만을 명승으로 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옛 보성 군수 신(辛)공계서 은거(隱居)할 재실(齋室)을 짓고 자연(自然)을 즐기던 곳이라서 이름하였고, 마침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바위가 신(辛)공을 만난 것 또한 그 사이에 운수가 있었기 때문이리라[1].

라는 내용으로 보아, 문암정의 조영배경과 주요경관요소인 문암 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지역의 명당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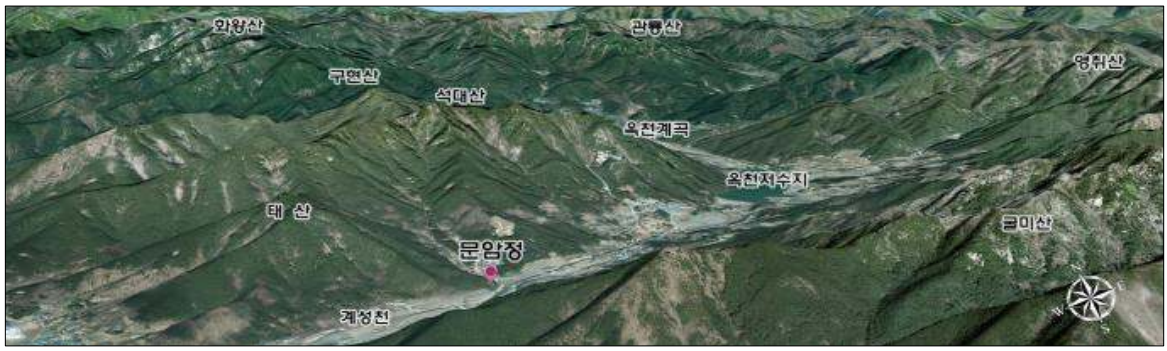

그림 1 문암정의 입지(다음 3D 지도 참조)

o 현재 문암정 주변의 현황은 과거 문헌기록에서의 경관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문암정 전면의 계성천은 주변 마을인 일매골로 진입하는 도로와 교량이 개설되면서 미관상 계류 쪽 경관이 단절되고 문암정이 위치하고 있는 급경사면 아래에의 계성천 일대는 시멘트로 조성된 보와 견치석 석축, 농수로,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옛 경관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

2. 문암정 배치현황

---

1) 靈之山有巖者何限而獨聞巖以名勝稱焉何也盖以故郡守辛公所考槃者仍以爲號巖遂以顯焉巖之遇辛公亦有數在於其間耶

o 창녕 문암정의 공간구성은 각자바위 등이 있는 외부공간과 정자가 위치한 담장을 경계로 한 중심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공간은 다시 세분하여 유허비가 있는 비각공간, 암반이 위치한 2곳의 각자바위공간, 계류가에 인접하여 배롱나무가 식재된 급경사면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o 본공간은 문암정을 중심으로 동·서측에 위치한 진입공간, 영정각을 중심으로 하는 배향공간으로 구분되는데, 문암충의록에 따르면 문암정 작정초기의 원형은 문암정과 문암바위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문암정은 1836년에 보수된 기록이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1990년도에 재보수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문중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문암정의 진입공간을 형성하는 대문채는 1870~80년대에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890년대에 영정각을 축조하여, 도천서원과 함께 봉안하였다고 한다.

o 현재의 문암정은 담장으로 위요되어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데, 이는 1970년대 초에 낮은 돌담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전통담장의 형태로 개수하였다.

그림 2-a. 『문암충의록』 문암소영

그림 2-b. 현재 문암정 진입로 전경

그림 2-c. 문암정과 문암 바위

그림 2. 문헌상 그림과 현장사진을 보면 과거에는 새로 조성한 담장과 문간채가 없는 상태에서 문암 신초가 문암바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o 현재 문암정으로의 동선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341번지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산 10번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과수재배 및 전답으로 구성된 농림지역이다. 현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근 과수원의 진입을 통하여 문암정에 진입할 수 있으나 과거 문암충의록에서 나타나는 「문암소영」의 그림을 살펴보면 현재와는 다른 진입동선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암정의 영역을 한정하는 문간채 및 담장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문암정 후면의 송림을 지나 문암바위로의 직접적인 진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 문암정의 진입동선 추정

3. 문암정 주변 현황

가. 식생

1) 개관

o 문암정 일원의 식생은 문암정 경내, 문암정 전면의 배롱나무 군과 문암정 후면의 송림으로 구분된다. 문암정 경내에는 매우 제한적인 식재형태가 나타났다. 영정각 주변에는 배롱나무 4주가 영정각을 중심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사당 후면의 석축에는 산철쭉이 군식되어 있다. 문암정 동측에는 백목련, 은행나무, 영산홍, 산철쭉이 각각 1주씩 식재되어 있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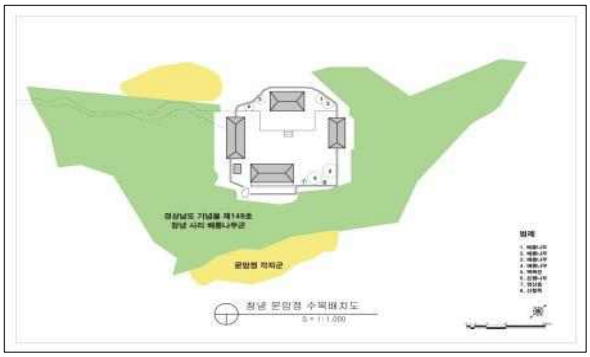

그림 . 창녕 문암정 수목배치도

출처	저자	관련 문헌	내용
1	배롱나무	사당 북동측	단목
2	배롱나무	사당 북동측	단목
3	배롱나무	사당 서측	단목
4	배롱나무	사당 서측	단목
5	백목련	문암정 북동측	단목
6	은행나무	문암정 북동측	단목
7	영산홍	문암정 북동측	단목
8	산철쭉	문암정 북동측	단목
9	산철쭉	사당 북동측-서측	군식

표 1. 문암정 내 수목 식재 현황

o 창녕 사리 배롱나무 군은 태풍'루사(2002)','매미(2003년)'의 피해를 입어 훼손되었으며, 그 이후 300주 정도를 새로 식재하였으나, 2008년부터 대숲이 번성하여, 창녕군에서 대나무 제거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문암정을 구분 짓는 담장과 연접하여 송림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4 . 문암정 식생 전경

2) 배롱나무군에 대한 식물생태학적 가치

o 노거수 배롱나무 집단개체군 분포

· 조사결과, 근원경(root collar diameter) 20cm 이상의 배롱나무 노거수가 20개체 이상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배롱나무 노거수 개체군으로, 배롱나무의 특성(생육속도가 매우 느리며, 천이계열상 지위(niche)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악)을 감안할 때 배롱나무 노거수 집단개체군의 현재 분포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어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다.

· 문암정 인근 경사지에는 배롱나무 노거수가 바위틈 사이에 서식하고 있다. 현재 배롱나무 노거수 가운데 최고 수고로 알려지고 있는 개체는 부산시 부산진구에 서식하는 양정동 배롱나무(천연기념물 제168호)로, 최고수고가 8.3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리 배롱나무군은 이와 유사한 수고인 6.5m 내외의 아교목성 배롱나무(H6.5m×W6.8m)가 서식하고 있으며, 3개체 이상의 보다 많은 수가 생육하고 있어 종자원적 측면에서 보호의 가치가 높다.

· 문암정 주변에는 100여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령(樹齡)의 배롱나무가 개체군을 이루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비정형 근원경 65cm에 이르는 배롱나무 노거수(GPS: 35°29′30″N, 128°31′43″E, 80m a.s.l)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수령의 노거수가 약 10여 개체 서식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술한 양정동 배롱나무를 제외하면 국내 보고된 배롱나무 노거수 가운데 고령목군(群)에 해당하며, 이들 수령의 배롱나무 노거수가 10여 개체 이상 함께 분포하는 지역은 본 지역이 유일하다.

그림 5) 비정형 근원경 65cm의 배롱나무 현황 (H6.5m×W6.8m)

o 화강암 암반으로 형성된 고유 서식처와 독특한 경관

· 배롱나무 자생지의 본래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인 절벽경관의 오픈스페이스에 분포하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 분포하는 배롱나무는 화훼자원으로서의 심미적 가치 또는 유교사상의 의미 추구를 목적으로 재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대부분의 분포지는 묘지, 서원, 사찰 및 도로변에 치우쳐있다. 그러나 사리의 배롱나무 노거수 개체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변 절벽서식처에 분포하고 있으며, 화강암 괴석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고유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응서식처를 활용한 반고유종의 적응과 정착에 관한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모니터링 연구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문암정 배후산지를 따라 180년 이상 관리되어온 소나무 장령림(Pinus densiflora forest)이 잔존하고 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산지대의 산마루 능선입지에 위치한 이 솔숲은 문암정이 위치한 서식처 특성을 오롯이 반영한 숲으로서, 후손들에 의해 오랜 기간 관리되고 보존되어 온 지역의 솔숲 숲정이경관을 대표하고 있다. 문암정과 함께 주요 경관요소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

o 문화와 결부된 자연자원

·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사리 배롱나무는 의병장으로 활용했던 신초장군이 1,600년경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다수의 노거수 자원들이 그 분포의 희귀성과 종자원적 가치(수령, 수형, 이야기 등)를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종에 대한 식재의 기원과 명확한 연대 추정은 극히 제한적인 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배롱나무 개체군은 정확한 기록문화와 결부된 매우 드문 역사기록 종자원으로서, 후손에게 잘 알려지고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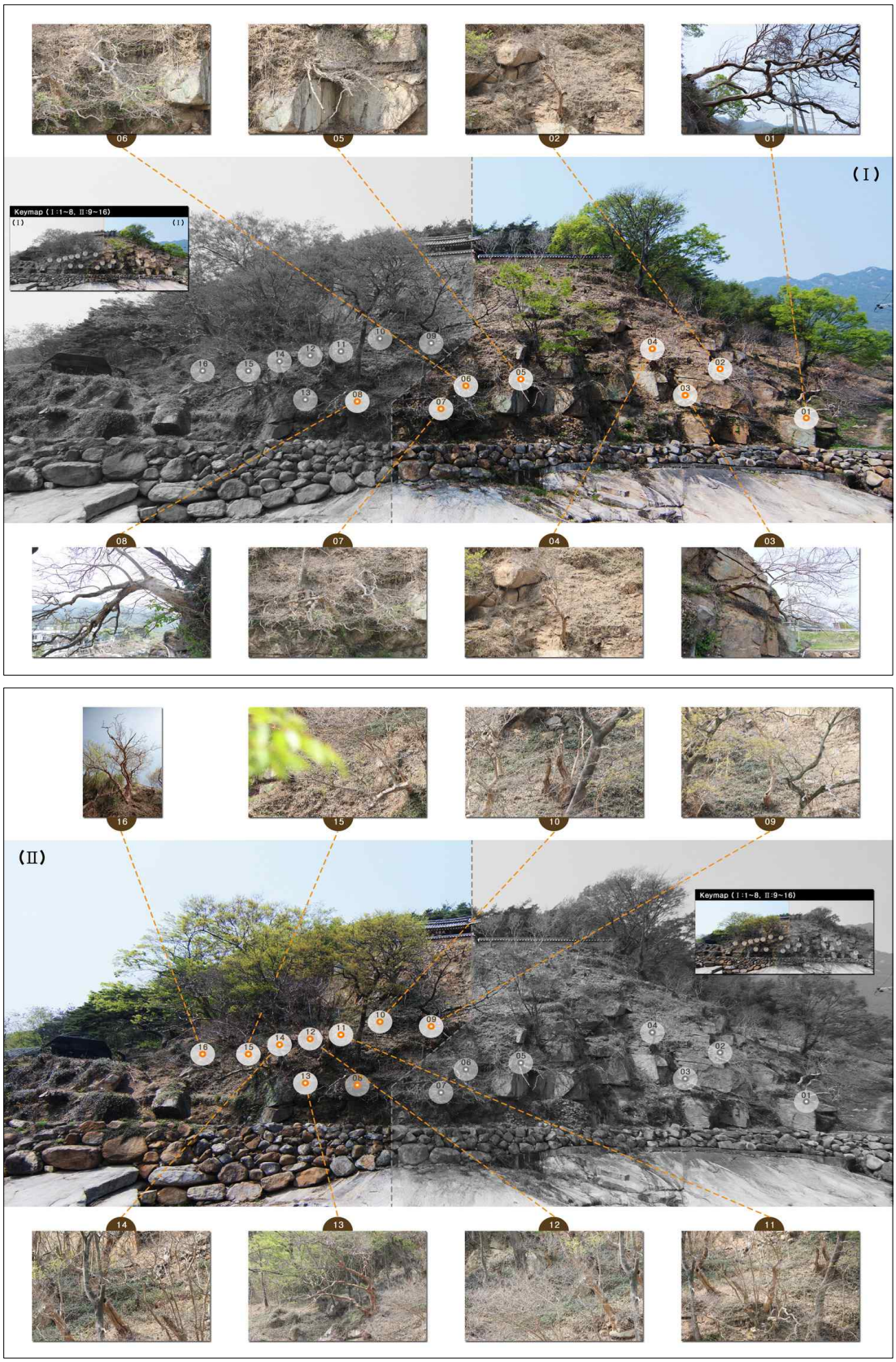

그림 6. 문암정 배롱나무 현황도

나. 건조물

o 문암정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을 기본으로 남동향을 향한 정자로 좌측 2칸은 각각 방이 있으며, 우측 2칸은 마루로 조성되어 있다. 평면구성은 우물마루를 설치하여 전면을 향해 개방된 형태이다.

o 문암정 내로 진입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문암정을 기준으로 북동향에 위치한 문간채 북서측에 위치한 대문채이다. 문암충의록의 그림을 토대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래 문암정은 별도의 진입공간이 없이 정자만이 존재하고 있어 현재의 대문채는 차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중 인터뷰에 의하면, 1870~80년대에 새로 조성한 문간채로 후손들이 편의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o 영정각은 문중에서 정자에서 여름에 계회를 하다 회의를 통해 사당을 짓기로 결정하고 조성한 건조물로, 현재 신초의 영정은 유극량집에 있었는데 모사본을 그 집에 두고 1890년대에 영정을 모시고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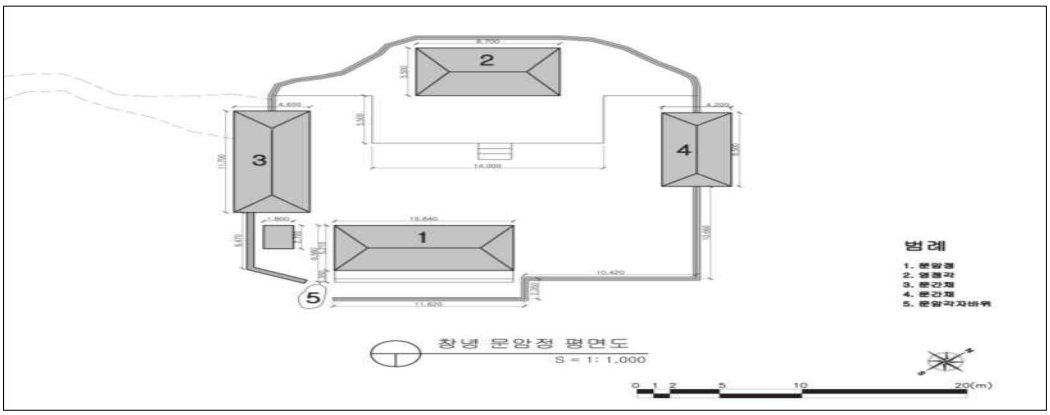

그림 7. 문암정 배치도

그림 8-a. 문암정

그림 8-b. 영정각

그림 8-c. 문간채(서측)

그림 8-d. 문간채(동측)

그림. 문암정 경내 건조물

다. 각자바위

o 문암정의 급경사면 암반부에 위치한 바위글씨는 총 36개소로 각자군에 나타나는 인물의 생몰년대를 살펴보면 16세손 신준식(辛駿植, 1801-1875)에서 17세손 신용석(辛容奭, 1955)에 이르는 4대, 164년간의 인명을 각자로 새겨 넣은 기록문화가 나타난다. 바위글씨 군(群)은 14세손에서 18대손으로 이어지는 신초장군의 사당을 지키던 유사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종친회에서 회의를 거쳐 바위에 남긴 것이라고 한다. 문암정 유사로서 외손 9명을 포함하여, 영산신씨 일가의 인물만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이 신공의 후손들이며 외손 중에서도 문암정에 관련된 인물 및 유사의 인명이 소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바위글씨 행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한 가문에서 나타난 공적을 기리기 위한 일련의 기록행위로 보여지는데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의 바위글씨가 한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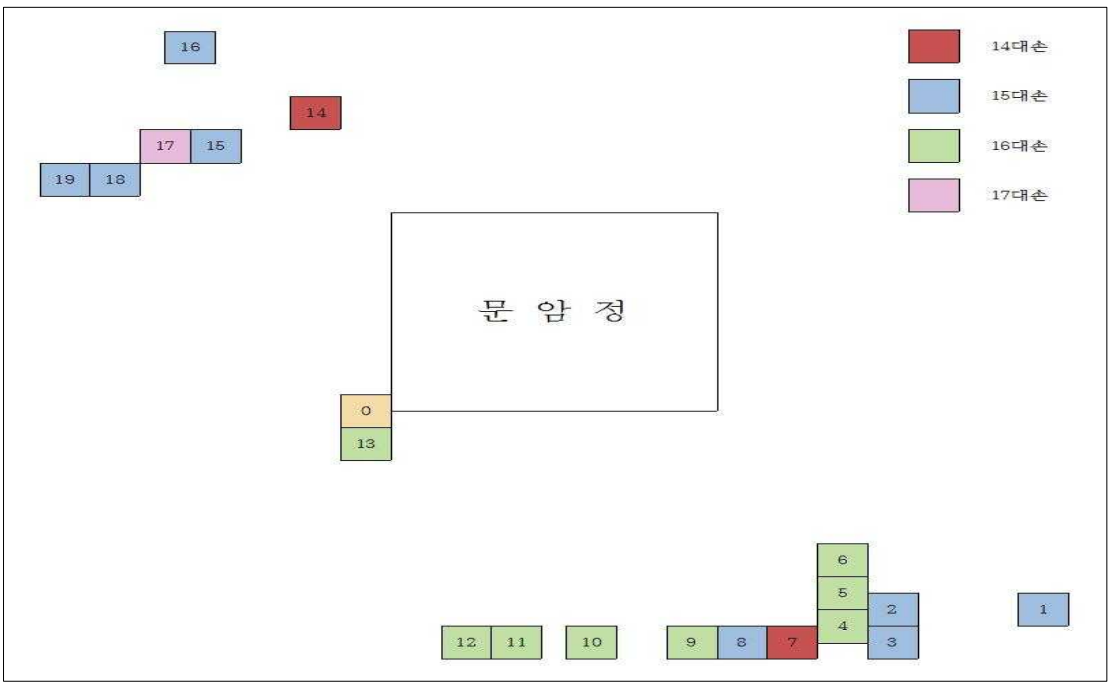

그림 9 . 문암정 바위글씨 현황 모식도

그림 10. 문암정 바위글씨 군(群)

o 이러한 바위글씨 군은 3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Ⅰ구역은 문암정과 동일한 남동향으로서 계성천과 연접한 지역에 14세손 신영헌(辛泳憲, 1860~1910)을 시작으로 남서측으로 6개소 16명의 바위글씨가 기록된 곳으로 각자된 인물의 생몰년대는 1860~1950년에 해당하고 이를 1차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Ⅱ구역은 문암정의 북동측 진입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각자군으로서 6개소 10명의 바위글씨가 기록되어있다. 인물들의 생애는 1858~1973년에 걸쳐 15세손 신영목(辛泳穆, 1858-1935, 종손)을 기점으로 18세손까지 점차 위쪽으로 인물들을 새겨넣은 것으로 보인다. Ⅲ구역은 문암정의 북서측 송림에 위치한 각자군으로 7개소 10명의 바위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물들의 생애는 1835~1955년에 걸쳐 15세손 신영호(辛泳湖, 1835-1920)을 시점으로 남서측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o 또한 바위글씨의 서체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Ⅰ구역에 해당하는 바위글씨는 세 가지의 서체가 발견된다. 첫째는 Ⅰ구역의 인물 중 가장 항렬이 높은 신극성(辛極成, 1862~1907)로 문암정 주변 바위글씨 중 유사한 사례가 없는 서체로 최초 음각한 것으로 보이며(그림 11-a 참조), 두 번째는 문암정 주변의 바위글씨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서체로 고암 김경필의 후손 김교영이 새겼다고 전해지고 있다(그림11-b 참조). 세 번째는 외손의 인명을 기록한 부분으로 서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산신씨의 유사들을 1·Ⅱ차적으로 음각한 후 외손을 포함하여 기록한 시기로 보여진다(그림11 -c 참조). 외가를 포함하여 기록하는 형식은 Ⅰ기 이후의 Ⅱ, Ⅲ에도 나타나는데, 외손의 서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시기는 Ⅰ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으로서 Ⅰ기의 시간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o Ⅱ기와 Ⅲ기에서 나타나는 서체는 동일한 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Ⅱ기의 항렬관계는 일정한 방향성과 위계를 나타내고 있고, Ⅲ기는 다소 불규칙적인 배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후기에 추가적으로 조성한 다른 시기로 분류되어 진다. 또한 Ⅲ기에서는 장방형의 글씨틀에 인명을 음각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a. 최초 바위글씨 서체

그림 11-b.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서체

그림 11-c. 외손의 인명 서체

그림 11-d. 장방형의 글씨틀에 음각한 서체

그림 11. 문암정 일원 바위글씨 서체의 종류

o 바위글씨가 새겨진 인물의 관계 및 생몰년도, 서체를 기준으로 바위글씨 군(群)을 분석한 결과,

· 첫째, 문암정 주변의 바위글씨는 3시기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이 중 Ⅰ기는 다시 14세손을 대상으로 바위글씨를 최초로 시도한 시기와 이후 15세손의 인명을 음각한 시기, 같은 항렬의 외손을 포함하여 조성한 시기로 세분할 수 있다. Ⅱ기는 동일한 서체로서 종손을 시점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제히 조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Ⅲ기는 기존 Ⅰ·Ⅱ기와 동일한 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성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기와 바위를 고른 뒤 다시 음각한 시기로 다시 구분되어진다

· 둘째, 바위글씨가 새겨진 장소는 각 시기별로 분류되어 항렬이 높은 인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각자를 새겨놓은 것이 아닌 문암 신초의 후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명각자로서 각각의 바위글씨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련의 규범을 지니고 있어 조상을 기리는 후손들의 경(敬)의 정신이 바위글씨로 결부되는 독특한 기록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형 및 지질

o 지형현황을 살펴보면 문암정의 북동쪽에 위치한 화왕산과 석대산, 영취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문암정 일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화왕산(756m), 구현산(581m), 영취산(739m), 등은 해발 250mm 까지는 12%이내의 완만한 경사지를 형성하다가 해발 300m를 기점으로 정상부까지 60°~70°의 급경사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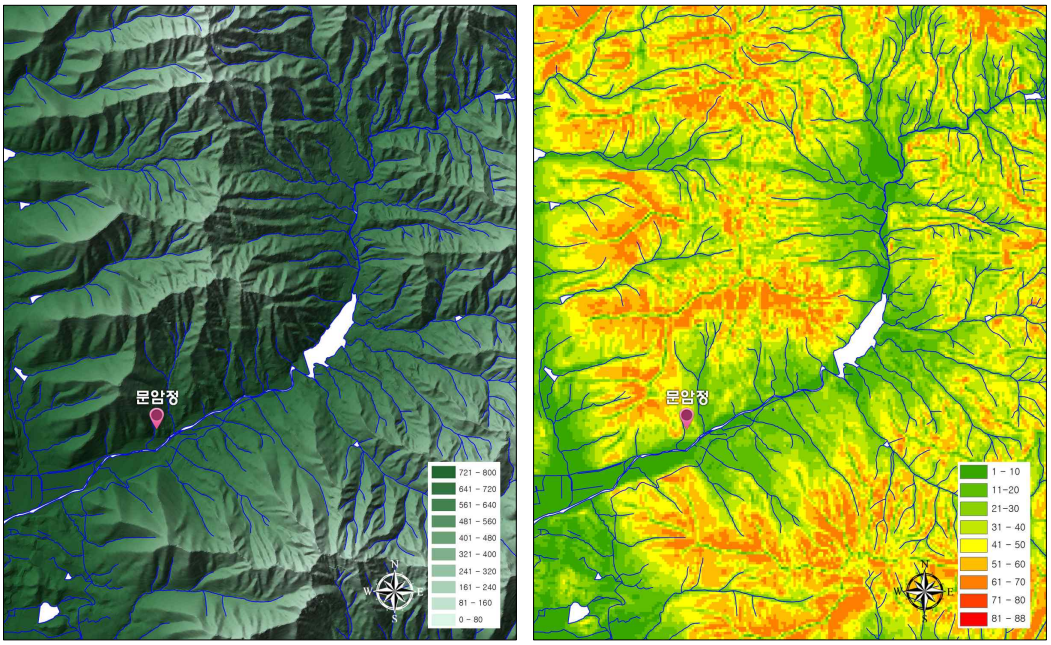

그림 12. 문암정 일대 표고 및 경사분석도

o 문암정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은 주 진입부의 문간채 쪽으로 경사가 이루어지고 문암정 대지는 평탄지로 조성하였으며, 현재의 진입구 쪽으로는 경사지로 형성된 성곽과 같은 고립지형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경사면에 입지한 문암정

5. 자연경관 현황

가. 식생

o 문암정 일원의 식생은 문암정 경내, 문암정 전면의 배롱나무 군과 문암정 후면의 송림으로 구분된다(그림 18 참조). 문암정 경내에는 매우 제한적인 식재형태가 나타났다. 영정각 주변에는 배롱나무 4주가 영정각을 중심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사당 후면의 석축에는 산철쭉이 군식되어 있다. 문암정 동측에는 백목련, 은행나무, 영산홍, 산철쭉이 각각 1주씩 식재되어 있었다

o 창녕 사리 배롱나무 군은 태풍'루사(2002)','매미(2003년)'의 피해를 입어 훼손되었으며, 그 이후 300주 정도를 새로 식재하였으나, 2008년부터 대숲이 번성하여, 창녕군에서 대나무 제거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문암정을 구분 짓는 담장과 연접하여 송림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4. 문암정 식생 전경

o 화강암 암반으로 형성된 고유 서식처와 독특한 경관

· 배롱나무 자생지의 본래 서식처와 유사한 환경인 절벽경관의 오픈스페이스에 분포하고 있어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 분포하는 배롱나무는 화훼자원으로서의 심미적 가치 또는 유교사상의 의미 추구를 목적으로 재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대부분의 분포지는 묘지, 서원, 사찰 및 도로변에 치우쳐있다. 그러나 사리의 배롱나무 노거수 개체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변 절벽서식처에 분포하고 있으며, 화강암 괴석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고유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응서식처를 활용한 반고유종의 적응과 정착에 관한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모니터링 연구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o 문암정 배후산지를 따라 180년 이상 관리되어온 소나무 장령림(Pinus densiflora forest)이 잔존하고 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산지대의 산마루 능선입지에 위치한 이 솔숲은 문암정이 위치한 서식처 특성을 오롯이 반영한 숲으로서, 후손들에 의해 오랜 기간 관리되고 보존되어 온 지역의 솔숲 숲정이경관을 대표하고 있다. 문암정과 함께 주요 경관요소로 보존의 가치가 높다.

o 문화와 결부된 자연자원

·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사리 배롱나무는 의병장으로 활용했던 신초장군이 1,600년경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다수의 노거수 자원들이 그 분포의 희귀성과 종자원적 가치(수령, 수형, 이야기 등)를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종에 대한 식재의 기원과 명확한 연대 추정은 극히 제한적인 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본 배롱나무 개체군은 정확한 기록 문화와 결부된 매우 드문 역사기록 종자원으로서, 후손에게 잘 알려지고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으로 판단된다.

6. 문화경관

가. 문암팔경

·산수자연은 예로부터 문화를 생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사회적 의미와 표상하는 문예적 내용 또한 변모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문인들이 산수자연을 단지 심성수양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풍류적 문화공간으로 인식을 전환하였다(김해경과 최기수, 2002). 팔경은 해당 지방의 자연풍토의 토래 아래 문화적 정서가 담겨있으며, 수려하고 특징있는 경관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그 지역의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현상이다(정기호 등, 2009). 따라서 '문암팔경'에서 나타나는 시문은 문암정 일원의 경관특성과 경관의 경영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聞巖八景

歲歲年年百日紅 何如桃李片時紅 春光不逐仙翁去 依舊簷前灼灼紅 / 簷前百紅
亭亭石上一叢孤 曾伴賢人德不孤 淸標已逐琅玕古 滿天霜雪鳳飛孤 / 石間孤松
老僧不就蒲團眠 每到樹陰繁處眠 高枕石頭欹雪衲 也應模去有龍眠 / 南亭眠僧
油然出岫靄然歸 不作商霖也不歸 衣拘斯須紛變態 夕陽天末欲何歸 / 北嶽歸雲
天上飛烏若木西 忩忩來去汨東西 吾今欲把長繩繫 聊使羲輪不復西 / 西川落照
三五疎星正在東 素輝光射廣寒東 萬里瑤空懸一片 謫仙長待酒樓東 / 東嶺望月
壺裡乾坤貯在氷 更添巖雪映泉氷 丹崖翠壁齊明潔 長谷渾成一段氷 / 氷谷齊雪
不關蘭寺飯時鍾 休說寒山夜半鍾 最是聞巖淸曉夢 依徵精舍度溪鍾 / 山寺曉鍾

· 문암팔경 현판에서 나타나는 송음과객(松陰過客)의 인물을 살펴보면 송음(松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인물은 시문에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 송음은 특정 인물의 호가 아닌 일반적인 문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송음과객'을 토대로 문암팔경의 작자를 추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문암충의록 속집(聞巖忠義錄 續集)에 나타난 시문인 문암정팔경운(聞巖亭八景韻)은 현재 문암팔경 현판의 내용과 동일한데, 이 시문의 작자가'坡平 尹彝逸'로 기록되어 있어 문암팔경의 작자는 창녕 현감 윤이일[2](尹彝逸, 1696~1758)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문화재청 보도자료[3]에 의하면, 창녕 영산 석빙고(보물 제1739호)는 영취산(靈鷲山)을 마주하고 뒤로는 작은 개천이 흐르던 곳에, 18세기 후반 창녕 석빙고(보물 제310호, 1742년 축조) 보다 약 10~15년 후에 당시 현감이었던 윤이일(尹彝逸)이 축조했다고 한다. 이는 문암팔경에 기록된 시기인 을해년(1755년)과 유사한 시기로 윤이일이 창녕현감 재직 기간에 문암팔경을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 문암팔경에서 나타난 시문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는 경관 요소 및 조망 대상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 경관 요소 및 조망 대상의 유형은 가시적 요소와 비가시적 요소로 구분되며, 가시적 요소는 상시 조망이 가능한 요소와 조망기간이 일시적인 요소로 다시 세분된다(표 4 참조).

표 4. 문암팔경의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의 유형 분류

시문	내용	유형
簷前百紅	처마 밑의 백일홍	가시적 요소, 상시경관
石间孤松	암반 사이 소나무	가시적 요소, 상시경관
南亭眠僧	남쪽 정자에서 쉬는 스님	가시적 요소, 행태
北嶽歸雲	북쪽 산봉우리의 구름	가시적 요소, 일시적 경관
西川落照	서쪽 천에 보이는 낙조	가시적 요소, 일시적 경관
東嶺望月	동쪽 고개에 있는 달	가시적 요소, 일시적 경관
氷谷齊雪	눈이 내린 겨울계곡	가시적 요소, 일시적 경관
山寺曉鍾	산사에 울리는 종소리	비가시적 요소

· 상기 표에서 나타나는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 중, 방위와 관련된 경관요소에 대한 유추는 고문헌에서 나타나는 방위의 설정이 현재 통용되는 절대방위와,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조영자 및 작자가 설정하는 상대방위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2) 윤이일(尹彝逸) 숙종 22년(1696)~영조 34년(175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휴경(休卿). 초명(初名)은 상일(尙逸). 강(絳)의 증손, 지선(趾善)의 손, 정(定)의 아들이다. 영조 24년(1748) 서부도사(西部都事)·사릉령(思陵令)을 거쳐 아산현감(牙山縣監)을 지냈다. 묘소는 안산시 선부동에 있다.

3)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03830&pWise=www2

1) 簷前百紅(첨전백홍)

· 창녕 사리의 배롱나무군은 신초 장군이 문암정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정자 주변에 심은 나무라는 기록이 있어,[4] '簷前百紅'의 문구가 지칭하는 대상은 문암정과 관련된 '창녕 사리 배롱나무 군(경상남도 기념물 제149호)'으로 판단된다.

2) 石間孤松(석간고송)

·'石間孤松'에서 나타나는 암반과 그 사이에서 생육하는 소나무는 문암정과 서측의 비각 사이에 위치한 송림일 가능성이 높다. 문암충의록 '聞巖嘯詠'(문암소영)의 그림과 문구를 살펴보면, 문암 신초의 뒤편에 수목 1주가 바위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암대에 수칸의 정자를 짓고 소나무와 더불어 대나무를 심었다(聞巖臺上爲亭數間植宋與竹).'는 내용을 통하여 그림에서 나타나는 수목이 소나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기사항으로는 문암충의록의 그림을 살펴보면, 현재의 문간채가 존재하지 않고, 문암정과 문암바위(臺)만이 존재하였으며, 문간채는 향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에서는 1주의 소나무가 묘사되어 있다.

3) 南亭眠僧(남정면승)

· 문암팔경에서 나타나는 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창포밭의 노승이 큰 바위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南亭'의 개념은 정자가 아닌 사찰의 암자로 접근하는 것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문암정이 있는 창녕 영산 일대는 영산 신씨의 선조인 신돈이 출생지로, 신돈과 관련된 사찰들은 모두 폐사되고, 당시에 존재하는 사찰 및 암자로는 관룡사, 삼성암, 극락암, 청련사 등이 있다. 이 중 삼성암, 극락암, 청련사는 대흥사[5]의 말사(末寺)에 해당하여, 관룡사와 대흥사로 축약할 수 있다. 관룡사의 경우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 방위를 추출할 수 있으나, 대흥사는 과거의 사격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청련사가 대흥사의 동쪽에 있는 암자라는 기록을 통해 현재 영취산 자락에 위치한 병봉 일원으로 대흥사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南亭'에 해당되는 요소는 절대적 방위의 측면에서는 대흥사가 해당되며, 문암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방위의 측면에서는 관룡사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 창녕 사리의 배롱나무군은 임진왜란(1592) 때 영산과 창녕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신초 장군이 계성면 사리에 정자를 짓고 노후를 보내면서 정자 주변에 심은(1,600년경) 나무들이다(문화재청 홈페이지).

5) 영취산의 북녘 기슭에 자리한 청련사는 영취산에 있던 대흥사(大興寺)의 작은 암자로 세워졌으며, 대흥사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암(東庵)이라 불려왔다. 대흥사는 청련사 뿐만 아니라 인근의 극락암(極樂庵), 삼성암(三聖庵)의 기록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일대의 많은 암자들을 거느릴 만큼 사격이 높았던 듯하다. 「영산현 영취산대흥사 법당이건중창기(靈山縣靈鷲山大興寺法堂移建重創記)」 현판에 의하면, 대흥사는 원효대사가 세운 절로 이후 폐사되었다가 1628년에 중창하여 양수암(兩水庵)이라 하였다. 1676년 대흥사의 옛 터로 옮겨 대흥사라 불렀는데, 100여년이 지나 다시 폐허가 되고 그 중 청련암만 어렵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전통사찰관광종합정보).

4) 北嶽歸雲(북악귀운)

·‘北嶽歸雲’의 요소 중 ‘歸雲’은 자연적인 현상이며, ‘北嶽’은 북쪽의 산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암정 주변의 산봉우리 중 북쪽을 의미하는 대상은 절대적 방위로는 북쪽으로부터 화왕산-구현산-석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혈에 위치하고 있어 북악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상대적 방위의 개념으로는 문암정 전면의 영취산 자락이 북악에 해당한다.

5) 西川落照(서천락조)

·‘西川落照’ 문구 중 ‘落潮’는 자연적 현상으로 일시적 조망대상에 해당하는 요소이며, ‘西川’은 방위에 관련된 요소로 절대적 방위로는 서쪽으로 흐르는 계성천에 해당되며, 문암정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방위의 개념으로는 화왕산 정상에서 발원하는 옥천계곡과 계성천이 해당된다. 계성천의 경우는 옥천저수지에서 유출되는 수원으로 절대적 방위인 서측으로 흘러가며, 문암정의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방위에서는 서측에서만이 계성천의 조망이 가능하다.

6) 東嶺望月(동령망월)

· 팔경시에 나타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절대적 좌표를 적용하여 보면 영취산에서 발원한 ‘절고개’이며, 문암정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방위로는 ‘공지기 고개’에 해당한다. ‘공지기 고개’는 임진왜란 당시, 문암 신초가 왜군의 앞잡이 ‘공호겸’을 죽인 장소로 그 후 “공(孔)가 적을 잡아 죽인 고개”라 하여 공적(孔敵)이 고개라 하였는데, 후에 공지기 고개로 변화하였다(향토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성득용, 2013). 이는 문암팔영시를 짓는데 있어, 문암 신초의 업적이 서린 장소적 의미를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氷谷齊雪(빙곡제설)

· 눈이 내린 후의 겨울계곡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암정의 전면에 흐르는 옥천계곡과 계성천의 설경을 지칭하는 것이다. 너럭바위 위에서 시를 지었을 법한 문암정의 주요 경관요소의 하나이다.

8) 山寺曉鍾(산사효종)

· ‘曉鍾’이라는 문구는 비가시적 요소로써, 문암정 일대의 산사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사’에 해당하는 장소는 문암정 조영 당시에 존재했던 사찰인 관룡사, 대흥사 등으로 유추할 수 있다.

9) 소결

·문암팔경에서 나타나는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을 문암정 외부에서 바라보는 절대적 방위와 문암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방위로 구분하여 요소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문암팔경에서 나타난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 유추

구 분	절대방위	상대방위
簷前百紅	창녕 사리 배롱나무군	
石间孤松	문암정 후면 송림	
南亭眠僧	대흥사	관룡사
北嶽歸雲	화왕산	영취산
西川落照	계성천	옥천계곡
東嶺望月	영취산 절고개	공지기고개
氷谷齊雪	옥천계곡	
山寺曉鍾	관룡사 / 대흥사	

· 문암팔경의 경관요소 중 현존하는 대상은 1경의 창녕 사리 배롱나무 군과 2경의 문암정 후면 송림, 5경의 계성천·옥천계곡, 7경의 옥천계곡 등이며 이 외의 경관요소는 명확한 장소와 대상의 추정이 불가능한 일반적 팔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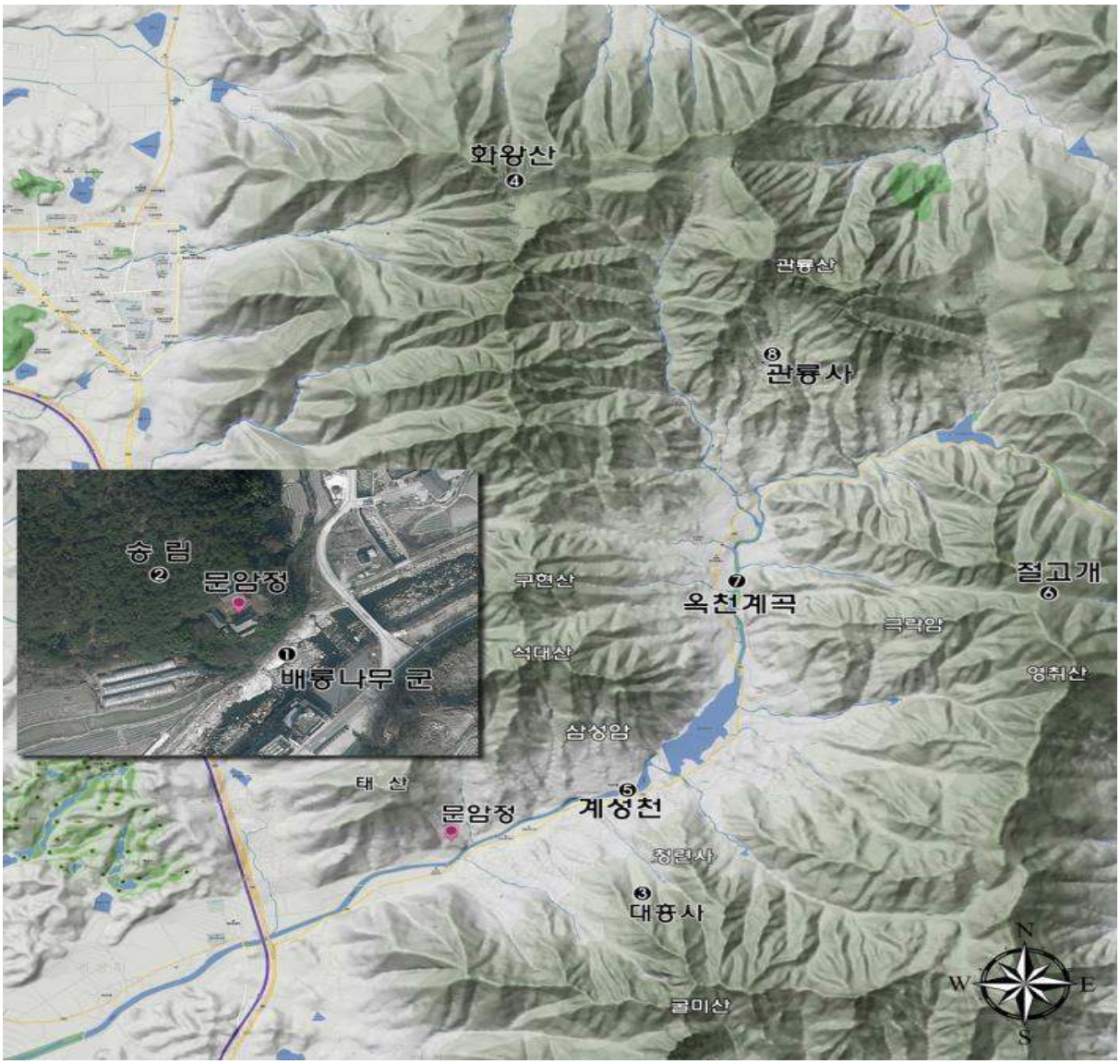

그림 15. 절대방위 기준의 문암팔경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

7. 결 론

o 창녕 문암정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및 원형을 구명하기 위해 조영실제 및 입지와 공간구성, 경관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헌분석을 통한 문암정의 조영실제를 파악한 결과 문암정의 조영자는 문암 신초(辛礎, 1549~1618)로 세상과 등지고 자연에 귀의하고자하는 조양자의 자연관을 알 수 있었으며, 문암정의 조영시기는 벼슬에서 물러나 문암정을 조성하고 소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1608~1618년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 둘째, 화왕산 줄기의 석대산을 배경으로 관룡산과 화왕산에서 발원한 계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안산에 해당하는 굴미산과 마주하고 있는 문암정은 본제와 격리되지 않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는 별서로서 문헌에서도 그 지역의 명승으로 인식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암정 주변의 마을진입로의 교량과 계성천의 석축, 보, 주변 농경지의 시설 및 주택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조망경관이 훼손된 상태이다.

· 셋째, Arc-GIS 분석결과, 문암정은 주변 산지에 위요되어 있고, 60~70。의 급경사지에 형성된 성곽과 같은 고립지형을 보이고 정상에 평탄지를 조성하여 문암정을 조성하였다.

· 넷째, 문암정이 위치한 중심공간과 문암정 동·서측에 위치한 진입공간, 영정각을 중심으로 하는 배향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문암정의 원형은 문암정과 문암바위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로, 현재의 진입동선과는 달리 조성 당시에는 직접적인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다섯째, 문암정의 공간구성요소로는 창녕 사리 배롱나무 등의 식생, 각자바위로 대표되는 점경물, 정자를 포함한 건조물로 구분되어진다. 문암정 일원의 식생은 경내와 경외로 나뉘어, 경내는 매우 제한적인 식재가 이루어졌으며, 경외는 전면의 배롱나무림과 후면의 송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배롱나무림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배롱나무 군락으로 조영자와 결부된 자원으로의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각자바위는 문암정과 인접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영자와 관련된 경물로 작용하고 있고, 한 가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록행위의 하나로 문암정 전면의 바위글씨군(群)은 일정한 방향성과 규범을 가지고 시기별로 조성된 사례이다.

· 여섯째, 문암정의 경관특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문암팔경'을 분석하고 경관요소 및 조망대상을 유추한 결과 방위에 따른 방위와 관계없는 경관요소가 4개소, 방위에 따른 경관요소가 4개소로 나타났다. 방위와 관계없는 경관요소로는 창녕 사리 배롱나무군, 문암정 후면 송림, 옥천계곡, 관룡사·대흥사가 해당하였다. 방위와 관계한 요소 중 절대방위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대흥사, 화왕산, 계성천, 영취산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위로는 관룡사, 영취산, 옥천계곡, 공지기고개가 해당하였다. 이 중 현존하는 대상은 창녕 사리 배롱나무 군과 문암정 후면 송림, 계성천·옥천계곡 등이 있으며, 이 외의 경관요소는 명확한 장소와 대상의 추정이 불가능한 일반적 팔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라. 검토의견

(****)

○ 창녕 문암정은 조선시대 현풍현감과 보성군수를 역임한 문암 신초(1568~1637)장군이 말년을 소요하던 정자로 현재 신초영정각과 유허비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돈의 일미사지가 인접하고 한강정구의 팔제등이 일부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 정자의 입지는 화왕산 줄기의 태산과 영취산 줄기의 굴미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계성천이 절벽 앞을 흐르고 있어 조망이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 문암정에 인접한 '문암'각자 바위와 주변 경관을 노래한 문암팔경, 영정각 유사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주변의 각자바위군은 매우 희귀한 사례에 해당하며, 신초장군이 직접 심었다는 배롱나무군락이 현존하여 정자문화와 관련한 귀중한 금석문과 자연환경 등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아 명승으로 지정됨이 타당함.

(******) - 경상남도 자연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의견

○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지정되어 예산이 뒷받침되면 배롱나무 보식, 잣나무 제거등에 유념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십분 높이도록 하면 좋을 것임.

마. 지정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Ⅰ.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창녕 문암정
3. 문화재 지정 가치 :
   1) 창녕 문암정은 경남 창녕군 계성면의 계성천 가에 문암 신초에 의해 조성된 정자로서, 사리 마을입구에 약 20m 높이의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음.
   2) 문암정의 건조물은 문암정, 영정각, 문간채(동, 서 각1채)등 4채의 한옥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건물들은 모두 조성연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로 판단됨.
   3) 문암정은 문암 신초와 관련된 별서이나, 별서가 지니고 있는 정원요소로는 문암정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약간의 노쇠한 수목(배롱나무) 이외의 다른 요소는 없음.
   4) 계성천 변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문암정의 경관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문암정에서 바라보는 문암정의 외원요소, 즉 계성천과 건너편의 마을경관은 매우 훼손되어 있는 상황임.
   5) 문화경관의 측면에서 볼 때, 문암정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인문학적 자료의 발굴이 부족한 상황임.

Ⅱ. 보호·관리 방안 검토

<문암충의록>의 문암소영을 참고하여, 문암정 및 문암바위 주변을 정비하고 계성천 일대의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옛길을 복원하는 등 본래의 문암정 전통경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Ⅲ. 종합의견

창녕 문암정은 현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대상으로 판단되며, 문암정 주변·계성천 등의 내원요소 및 외원요소의 정비가 필요하고 문화경관적 요소도 더 발굴해 볼 필요가 있는 문화재임.

(* 문화재위원)**

Ⅰ.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 승
2. 문화재 명칭 : 창녕 문암정
3. 문화재 지정 가치
   1) 문암정(聞巖亭)은 계성천 계류변 약 20m 높이 절벽 위에 있는 정자로 신초(辛礎: 1549-1618)가 은거하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별서로 지은 것임.
   2) 신초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정자만 건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중에 영정각, 신·구 문간채 2동, 담장 등이 추가되어 현재는 별서와 사당의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임.
   3) 절벽에 식재된 배롱나무 군(群), 절벽 위에 위치한 문암정,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동산의 바위들과 송림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
   4) 특히 절벽에 있는 배롱나무 군(지방기념물)은 토양층이 발달하지 않은 60～70° 경사의 절벽 면에 인위적으로 단(壇)을 구축하여 그 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일종의 원림을 구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5) 태풍 루사(2002)와 매미(2003)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후에는 배롱나무 300주 정도를 새로이 식재하고 2008년부터 대숲이 번성함에 따라 원래의 배롱나무 경관이 상당히 변질된 상태임.
   6) 문암정에서 외부로 내다보이는 경치는 원경(遠景)에 있어서 영취산 능선이 잔잔한 물결처럼 전개되는 파노라마 경관을 여전히 연출하고 있지만 근경(近景)에 있어서는 계류 그 자체와 그 주변에 들어선 도로, 교량, 보, 석축, 농수로, 전신주, 가옥 등이 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음.
   7) <문암충의록 속집(聞巖忠義錄 續集)>과 <문암정팔경운(聞巖亭八景韻)>에 언급되고 있는 문암팔경(聞巖八景)에서 배롱나무 군이 역시 제 1경으로 묘사되어 있음. 신초가 한강 정구, 여현 장현강, 망우당 곽재우 등과 함께 산수 유람을 한 것으로 보아 문암정이나 문암팔경을 언급한 구절이 다른 문인들의 문집 속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Ⅱ. 보호·관리 방안 검토

<문암충의록>의 문암소영의 그림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문암정과 그 주변의 경관은 그 진정성이 19세기 말부터 저하되기 시작하였지만 현저히 감소한 것은 현대 이후로 추정됨. 문암정과 그 주변의 경관이 지니는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암정, 문암 각자 바위, 문암정 진입로, 절벽과 그 주위의 식생경관, 계류변 경관을 가급적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정비 작업이 요구됨. 특히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배롱나무 군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가 수준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Ⅲ. 종합의견

현재의 상태에 근거할 때 창녕 문암정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새로운 인공적 요소의 추가로 인하여 진정성이 많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창녕군과 신씨 문중(辛氏 門中)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함. 절벽 면에 자라는 오래된 배롱나무 군이 지니는 독특한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전문가적 접근이 요구됨. 그리고 개인 문집 등 고문헌에 등장하는 문암정 관련 구절을 발굴하여 문암정 일대가 지니는 역사문화명승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Ⅰ. 주요 지정사항 검토

1. 문화재 종별 : 명승
2. 문화재 명칭 : 창녕 문암정
3. 문화재 지정 가치
   1) 경남 창녕군 계성면의 계성천 가에 있는 문암정은 신초(1549-1618)가 약 20m 높이의 절벽 위에 지은 별서로서 고상식 정자가 아닌 일반 건축형식임.
   2) 주 건물인 정면 4칸, 측면 2칸의 소로수장 단층 팔작집인 문암정은 신초가 벼슬에서 물러난 1608년부터 별세한 1618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추정될 뿐 정확한 초창연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다만 이후 연혁은 대청에 걸린 <聞巖精舍重建記>(1755년) 등 4개의 편액에서 1755년, 1815년, 1839년, 그리고 최근 1985년에 중건되었음이 확인됨.
   3) 이 밖의 건물로서 영정각은 1986년, 새 문간채는 1989년에 중건되었으며, 옛 문간채는 상량문에 '中元 乙丑年'이라는 알 수 없는 연호가 적혀 있어서 최종 중건연대가 불확실하므로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함.
   4) 현재의 문암정 일곽은 원래와 달리 영정각이 주 건물이 되고, 오히려 문암정과 옛 문간채, 새 문간채가 부속건물이 되는 등 신초가 처음 지었던 때의 건물배치가 흐트러져서 별서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임.
   5) 건축사적 측면에서 창건연대가 확실하지 않고, 최초의 원형을 알기도 어려운데다 이후에 건립된 영정각이 주 건물이 됨으로써 전체 건물배치가 흐트러지는 등 별서라기보다는 사당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진 상태임.
   6) 이 밖에도 영정각의 기단은 최근 조성된 탓인지 사용되지 말아야 할 2중 기단으로 착각할 정도로 법식에서 어긋나며, 옛 길 대신에 최근 새로이 급준한 경사의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 원래의 동선체계도 흐트러진 상태임.

Ⅱ. 종합의견

문암정 일곽의 건물 4채는 상량문이나 중건기에서 보듯이 극히 최근에 지어져서 건축사적 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임. 그나마 빼어난 경관을 포함한 별서건축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건립연대와 당시의 원형이 어떠했는지가 밝혀져야 함. 아울러서 자연경관과 별서건축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건축주의 조영의도, 건립 이후 별서에서의 생활상 등이 문헌사료를 통해서 더 밝혀질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문암정은 현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대상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천기 2014-04-15

15.「독도 천연보호구역」입도횟수 확대 검토

가. 제안사항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바닷새번식기인 5~6월의 1일 입도횟수 제한 확대 건의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독도 천연보호구역」내 바닷새 번식기인 5~6월 1일 입도횟수 제한 확대(6회→12회) 건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임.

＊ '14년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4.3.26.)시 입도횟수 제한 폐지에 대하여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수용능력 분석 후 입도횟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허하였음

○ 독도 입도제도 개선 추진경과

- 1999. 5.31. 독도 입도허가제 실시(해양경찰서 이관)
- 2005. 3.24. 독도 입도 허가제→신고제로 전환(1일 140명/1회 70명)
  - 독도 선착장 및 동도 출입로 공개제한지역 해제
- 2005. 8. 1. 독도 관람인원 확대(1일 400명/1회 200명/동도 선착장)
- 2006.11.30. 독도 관람인원 확대(1일 1,880명/1회 470명)
  - 단, 바닷새 번식기(5~6월) 입도횟수(6회 이내), 헬기이용 제한
- 2009. 6.23. 1일 입도인원(1,880명) 제한 폐지 및 공개지역 확대
  - 공개지역 : 동도전역, 서도 어민숙소 및 선착장
  - 바닷새 번식기(5~6월) 입도횟수(6회 이내) 및 헬기이용 제한은 유지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울릉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지 정 일 : 1982.11.16.

(3) 신청내용

○ 신청내용 : 바닷새번식기인 5~6월 1일 입도횟수 제한 확대

- (현행) 1일 6회 이내 → (확대) 1일 12회 이내

○ 건의사유 : 관광객 집단민원, 관광객 증가가 바닷새 번식에 큰 영향 없음
- 독도 입도는 독도 공개지역인 동도부두 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바다제비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큰 영향 없음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바닷새 번식기인 5~6월 1일 입도횟수 제한 폐지는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1일 입도횟수 확대로 인한 번식기간 내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 문화재 전문위원)**

○ 건의사항
-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1일 입도제한 횟수를 완전 폐지가 아닌 기존 6회에서 12회로 확대

○ 모니터링에 따른 결론
-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도는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괭이갈매기 번식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동도 번식지(둥지) 일대의 괭이갈매기는 선박 접안 및 관광객 입도시 경계, 공격, 회피 등의 반응은 거의 없었으며, 주변 암초와 바위 등에서 휴식중인 무리가 과자 등의 먹이를 기대하고 몰려드는 것 외에는 생태교란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 괭이갈매기 번식기에 이루어지는 동도 입도 관광객 및 선박은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행사 등을 자제한다면 입도 횟수 증가 및 입도 관광객의 인원 증가는 독도일대에서 서식하는 조류 생태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독도 천연보호구역 입도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

*** 독도 입도 관광객이 괭이갈매기 번식기에 미치는 영향 관련 ***

○ 2006년부터 시행한 괭이갈매기 및 조류 모니터링 등을 바탕으로 독도 입도 횟수 및 인원 증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

○ 2013년 조류 모니터링은 총 3회(1차 4.21, 2차 5.16~19, 3차 10.19) 실시되었으며, 괭이갈매기의 번식시기인 1차, 2차 조사시 괭이갈매기의 번식 실태와 개체수 현황조사를 실시

- 1차조사시에 관찰된 괭이갈매기는 7,667개체가 관찰되었으며, 2차조사시에 확인된 괭이갈매기는 9,000여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3차조사는 괭이갈매기 번식기가 끝나고 내륙 해안으로 이동한 시기). 번식기 조사시 예년과 유사한 지역 및 시기에 독도일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간이 간섭하는 인위적인 교란으로 인한 행위는 거의 없었으며 괭이갈매기 번식에 미칠만한 교란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괭이갈매기 번식기에 독도 입도 선박과 관광객을 기준으로 동도 선착장에서 반경 100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괭이갈매기의 둥지가 분포하는 지역은 개체수(20개 이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선착장과 고도의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교란행위나 번식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오히려 관광객 입도시 관광객들에게 과자 등의 먹이를 기대하고 선착장 주위로 일부개체가 몰려드는 것을 확인
- 2013년 조사시 관광객 입도시 선착장 일대 전경과 괭이갈매기 번식지 일대 전경 촬영시 번식지 일대의 괭이갈매기 무리는 큰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
- 관광객 입도로 인한 번식지 및 둥지 가까이로 접근은 불가능하며, 또한 동도 선착장 인접한 지역은 절벽 및 낭떠러지 지대로 괭이갈매기의 둥지가 분포하는 지역은 선착장과 고도의 차이가 있어 괭이갈매기가 반응하는 경계거리와는 차이가 나타남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천기 2014-04-16

16.「양주 양지리 향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양주 양지리 향나무」 문화재명칭 변경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문화재청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양지리 향나무(천연기넘물 제232호)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2-1번지

○ 지 정 일 : ‘70. 12. 24

○ 관리단체 : 남양주시(남양주시장)

(3)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변경

○ 명칭 변경(안)

- “양주 양지리 향나무”(현재) ->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변경)

○ 명칭 변경사유

- 경기도내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행정구역상 존재하고 있어 남양주시에 있는 “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명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라. 검토의견(천연기념물과)

○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재 명칭 부여 기본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명이 변경되는 경우 문화재명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당초 행정구역명이 사라져 문화재의 역사성을 알기 위함.)

○ 그러나 경기도내 양주시와 남양주시가 행정구역상 존재하고 있어 남양주시에 있는 천연기념물 “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은 당해 문화재 정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보고사항】

천기 2014-04-17

17. 울주 반구대 암각화 인근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 보고

□ 보고사항

울주 반구대 암각화 인근 공룡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어 현지조사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 주요경위

○ '14. 4. 10　공룡발자국 화석 추정 암괴 발견 보도(울산매일)

○ '14. 4. 12　암각화박물관에서 현장조사

- 약 1m 너비 암괴 상부에서 5~6개의 공룡발자국 화석 흔적 확인

○ '14. 4. 14　공룡발자국 화석으로 확인 보도(울산매일)

○ '14. 4. 15　울주군으로부터 매장문화재(화석) 발견신고 접수

□ 현지조사 실시 / ('14. 4. 15)

○ 조 사 자 : ***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 조사결과

- 암각화박물관 인근 하상의 암괴(표면부 직경 1~1.5m, 높이 50~60cm) 상부 표면에서 5~6개의 공룡발자국 화석(직경 수십cm, 깊이 수cm) 확인
- 이 공룡발자국에서 기존에 보고된 공룡발자국과의 차별성이나 특이성은 관찰되지 않음
- 상기 암괴의 암질특성 및 공룡발자국의 산상, 주변 암반의 암질특성과 공룡발자국의 산상, 대곡천 일대 대구층 퇴적암에서의 공룡발자국 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암괴는 현재의 자연상태로 보존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조치계획

○ 대곡천 일대에서 산재한 기존 공룡발자국 화석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나 특이성은 없으므로 발견상태 그대로 현장보존하거나, 필요 시 우리 청과 협의 후 관리단체 자체적으로 이전보존 등 보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

□ 의결사항 : 접수

붙임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및 관련 사진

현지조사 의견(*** 문화재위원)

○ 상기 암괴는 인근주민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암괴의 상부 표면에 다수의 공룡발자국이 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발견신고가 이루어진 것임

○ 이 암괴(표면부 직경 1~1.5m, 높이 50~60cm 내외)는 자갈들로 이루어진 하상 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수m 떨어진 곳에 대구층 퇴적암의 암반이 절벽을 이루며 발달하여 있음

○ 암괴의 암질은 주변 암반과 동일한 대구층 퇴적암으로 대체적으로 충적평원 기원의 사질층과 이질층의 교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상부에 렌즈상의 캘크리트가 발달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암질 특성은 대곡천 일대의 공룡발자국이 산출하는 퇴적암과 동일한 특성임

○ 암괴 상부 표면에서 직경 수십cm 내외, 깊이 수cm 내외의 원형 내지 타원형의 함몰구조가 5~6개가 관찰되며, 이 함몰구조의 일부는 상위 퇴적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음

○ 이와 같은 상기 암괴의 암질특성과 표면부에 나타나는 함몰구조의 산출특성으로 미루어, 이들 함몰구조는 공룡발자국으로 판단됨

○ 상기 공룡발자국들이 산출한 암석의 표면부는 풍화작용에 의해 부분적으로 산화되어 있으며, 이들 공룡발자국들에서 기존에 보고된 공룡발자국들과의 차별성이나 특이성은 관찰되지 않음

○ 상기 암괴 주변의 절벽을 이루는 대구층 퇴적암의 노두와 전석에서도 공룡발자국의 산출이 확인됨

○ 전술한 바와 같은 상기 암괴의 암질특성, 이 암괴에 보존된 공룡발자국의 산상, 주변 암반의 암질특성과 공룡발자국의 산상, 대곡천 일대 대구층 퇴적암에서의 공룡발자국 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암괴는 현재의 자연상태로 보존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천기 2014-04-18

1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38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포장 대표 *** ○ 허가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설치 - 대지면적 : 1,173㎡ - 도로개설공사 : B=4.0m, L=32.8m(면적 700㎡)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 ・용도 및 건물구조 : 주차장관리실, 지상 1층 높이 6.33m, 철골조 ・건축면적 : 99.23㎡ ・건축 연면적 : 99.23㎡ ・건폐율 및 용적율 : 14.18%, 용적율 14.18%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 *****번지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12개월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낙동강사업관리본부장 ○ 허가사항 : 을숙도 철새공원 안내판 설치 - 사업목적 ・생태탐방로 주요지점 6개소 안내판 설치와 함께 QR 코드를 연계한 탐방객 편의 제공 - 사업내용 : 안내판 설치(QR코드 포함) - 사업위치 : 을숙도 탐방공원 내 ○ 허가기간 : 허가일~2014.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기술단 *** ○ 허가사항 :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지반조사 - 사업내용 ・굴착지름 76㎜, 굴착심도 70M, 수량 2공 - 사업위치 : 부산 하하구 하단동 1212, 사상구 삼락동 686 ○ 허가기간 : 허가일~2014.5.15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신청인 : 국립생태원(기초생태연구본부 ***) ○ 허가사항 : 낙동강 하구 생태계 내 야생생물 서식지 모니터링·관리·보전 체계 구축 - 저서성 대형무척주동물 : 월별1회(2박 3일) - 어류 : 분기별1회(5월, 7월, 9월, 11월 2박3일) - 식물 및 토양 - 조류 : 월별1회(2박 3일),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전구역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낙동강하구 일원 ○ 허가기간 : 허가일~2014.12.30 ○ 조건부허가 : - 사주조사는 현재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조사일자를 통일하여 합동조사를 실시, 선박 및 조사원의 출입횟수는 조사원 인원수는 최소화 - 5, 6, 11월 조사시 조류분야 전문가 결정에 따라 철새의 번식 및 월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 군	○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후계목 삽수채취 및 양성 -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1021 - 사업내용 : 후계목 삽수채취 및 양성 · 삽수채취 500개(굵기 10~15mm, 크기 15~20cm) ○ 허가조건 : 관련 전문가 입회하에 삽수를 채취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의 기본수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 허가기간 : 2014.3.31. ~ 2014.5.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신흥사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설악산 내 휴게소 및 식당 건립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 - 사업내용 : 휴게소 및 식당 건립(6동) · (휴게음식점) 164.7㎡,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5칸, 측면3칸 · (식당, 커피숍) 135㎡,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5칸, 측면3칸 · (식당) 126㎡, 지상1층, 한식목구조 “ㄴ”자, 정면6칸, 측면3칸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휴게소-식당A) 197.84㎡, 지상2층, 목구조 “Γ”자 ·(휴게소-식당B) 137.7㎡, 지상1층, 목구조 “ㄱ”자 ·(휴게소-식당C) 135㎡, 지상1층, 목구조 “ㅡ”자 ○ 허가조건 - 신축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계 및 시공 시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 기 제출된 계획서대로, 흔들바위 및 비선대 탐방로 휴게소, 주차장지역 휴게소 등 8동 철거를 조건으로 시행 ○ 허가기간 : 2014.4.3. ~ 2015.12.31.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오세암 주지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오세암 임시 가설요사채 축조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번지 - 사업내용 : 오세암 임시 가설요사채 축조 ·1개동, 지상1층, 97.2㎡ ○ 허가조건 - 지붕의 선형을 한옥의 전통적인 형태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하고, 외장 마감재를 전통한옥의 목재 및 벽체의 질감이 나도록 변경 - 변경된 설계(안)을 제출하여 재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며, 임시건축물(요사채)은 한시적으로 사용 ※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건축물 신축·철거 등 현상을 변경해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허가기간 : 2014.4.10. ~ 2014.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조이식 부착판 설치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번지 - 사업내용 : 해조이식 부착판 설치 ·부착판 설치 30개(L50×W30×H10)(cm) * (이식해조) 감태 * (시설방법) 수중시멘트를 이용하여 부착판 고정 ○ 허가조건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 해조이식 부착판 설치장소는 기존 해조류 생육이 없는 나지로 하되, 충분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최대한 해조류 군락이 단순하고 황폐한 곳으로 함 - 사업시행 전 설치장소에 대한 사진자료를 제출하여 검토 후 시행하며, 사업시행 후 일정기간 단위로 생육실태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를 제출 ○ 허가기간 : 2014.4.10. ~ 2014.5.31.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 신 청 인 : 서귀포시청(정방동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운동기구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번지 - 사업내용 : 운동기구(거꾸로 매달리기) 1개 설치 ○ 허가기간 : 2014.4.21. ~ 2014.5.31.	<허가>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 신 청 인 : 서귀포시청(천지동장)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놀이시설 설치 등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번지 1호 - 사업내용 : 놀이시설 설치 2개(회전놀이, 시소) 초화류 식재 500본(수선화, 채송화, 들국화) ○ 허가기간 : 2014.4.21. ~ 2014.10.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속초시(상수도사업소)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설악산 상수관로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번지 - 사업내용 : 설악산 내 상수관로 정비 ・설악산 매표소 일원 상수관로 정비 * 굴착 636m, 아스콘 포설 및 다짐 107㎡ * 상수관로 정비 : 덕타일주철관 97본(100mm×6m), 내충격수도관 9본(50mm×6m) ・설다원 일원 상수관로 정비 * 굴착 648m, 아스콘 포설 및 다짐 296㎡ * 상수관로 정비 : 덕타일주철관 98본(100mm×6m), 내충격수도관 10본(50mm×6m) ○ 허가조건 : 지하굴착 등 사업시행 시 주변 식생 및 나무뿌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허가기간 : 2014.4.21. ~ 2014.6.30.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인제군수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설악산 한계천 하상복구 공사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번지 67호 - 사업내용 : 설악산 한계천(옥녀탕 일원) 하상복구 · 전석쌓기(H 0.5~2.5m, L 41m), 하상준설 및 복구(944㎡), 가설도로(B 5m, L 100m), 오탁방지망 (20m) ○ 허가조건 : 사면부 전석쌓기는 큰 돌과 작은 돌이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도록 시행 ○ 허가기간 : 2014.4.21. ~ 2014.8.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신청인 : 제주특별도지사 ○ 허가사항 : 세계자연유산센터 진입로 개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흘리 478-5 ○ 사업내용 : 진입도로 및 보도 개설 - 도로개설(L=48.5m, B=4.0m), 보도시설(L=148.5m, B=2.0m) ○ 허가기간 : 2014.4.21~2014.7.31	<허가>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	○ 신청인 : 태백시장 ○ 허가사항 : 구문소 조망데크 설치 ○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 ○ 사업내용 :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을 위한 조망데크 설치 ○ 허가조건 : 절벽에 돌출하여 데크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 정자 앞의 나무를 선별 제거하여 설치할 것 ○ 허가기간 : 2014.4.21~2014.12.31	<조건부 허가>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 신 청 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사무소 ○ 허가사항 : 지리산 화엄사일원의 금정암 화장실 개축 - 1층, 건축면적 38.88㎡, 한식목구조, 맞배지붕, 5량가, 민도리집, 오수정화조 설치 등 ○ 허가기간 : 2014. 3. 17 ~ 2014. 12. 31일까지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신 청 인 : 대한불교 조계종 해인사 주지 ○ 허가사항 : 홍제암 경내지 지관대종사 탑비조성 · 사리탑 : 화강석(2.60*2.60m), H=3.50m · 행적비 : 화강석(2.30*2.60m), H=3.50m · 부대공사 : 기단설치 및 잔디식재, 토공사 등 ○ 허가기간 : 2014. 3. 19 ~ 2014. 7. 31일까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명승 제107호 광주환벽당 일원	○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허가사항 : 환벽당 일원 안내판 설치 허가 - 개별안내판, 영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사이트포스트)설치 ○ 허가기간 : 2014. 3. 25 ~ 5. 24.	<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신 청 인 : 공주시장 ○ 허가사항 : 공주 고마나루 주변 수목 식재 - 매화나무 320주, 배롱나무 35주 ○ 허가기간 : 2014. 3. 25 ~ 5. 31.	<허가>
	명승 제27호 양양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 신 청 인 : 낙산사 주지 ○ 허가사항 : 홍련암 종각 건립공사 - 바닥면적 : 3.24㎡(0.98PY) - 구조/규모 : 한식목구조 / 지상1층(사모지붕) ○ 허가기간 : 2014. 4. 2 ~ 12. 31.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허가사항 : 해인사 용탑선원 육화당 개축공사 - 규모 : 크기 12*6.8m, 면적 82.80㎡ , 정면4칸, 측면 3칸 - 한식목구조/5량가/초익공/겹처마/맞배지붕 - 기단 : 장대석기단/전돌깔기(기단바닥) - 초석 : 원형초석 - 지붕 : 맞배지붕(중와) - 익공형태 : 초익공(교두형) ○ 허가기간 : 2014. 4. 3 ~ 11. 30.	<허가>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 신 청 인 :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허가사항 : 보리암 삼층석탑 주변 정비 (탐방객 안전데크 및 안전난간 설치 - 형 식 : 목재데크 - 총 공사규모 : 데크면적 85.0㎡ • 안전데크 : 면적 85.0㎡ • 계단설치 : 폭 1.5m, 길이 9.3m • 안전난간 : 길이 53.0m , 높이 1.35m ○ 허가기간 : 2014. 4. 8 ~ 7. 31.	<허가>
	명승 제78호 제주서귀포 쇠소깍	○ 신 청 인 : *** ○ 신청사항 : 제주 서귀포 쇠소깍 주변 근린생활시설 증축 ○ 회신사항 : 불허 - 제주서귀포 쇠소깍 주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	<불허>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 신 청 인 : 종로구청장 ○ 허가사항 : 서울 백악산 일원 사방사업 계류보전(6건) - 기슭막이, 골막이, 사방댐 설치 등 ○ 허가기간 : 2014. 4. 14 ~ 6. 13.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명승 제36호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 신 청 인 : 종로구청장 ○ 허가사항 : 사방사업 계류보전 - 측구수로(옹벽형) : 14m(D=0.3) - 집수정 : 1개소(1*0.6*0.6) - 깬돌기슭막이 : 18m(H=1.5) - 이중벽관매설 : 14m(D300mm) - 콘크리트 철거 : 1식(계단,돌단) - 산철쭉 식재 : 2,000주(H0.3*W0.3) ○ 허가기간 : 2014. 4. 14 ~ 6. 13.	<허가>
	명승 제63호 부여구드래일원	○ 신 청 인 : 부여군수 ○ 허가사항 : 불교전래사은비 및 탑 이전 설치 - 구드래 공연장 뒤편으로 이전 ○ 허가기간 : 2014. 4. 14 ~ 11. 30.	<허가>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	○ 신 청 인 : 예천권씨 초간공파종중 ○ 신청사항 :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바닥면적 12.96m2 - 안채 개보수: 안채 전면 마루설치 - 기존샤워실 철거 및 기단보수 ○ 회신사항 : 불허 * 불허사유 · 안채 전면의 마루설치는 본래의 전통댓돌 형식의 원형을 변형하는 것으로 재검토 필요 · 화장실·샤워실 신축은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허용기준을 참고하여 건물내에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불허>
	명승 제77호 제주서귀포 산방산	○ 신 청 인 : 사계리마을회 ○ 신청사항 : 산방굴사 CCTV 설치 - 산방굴사 내부 CCTV 2개 설치 ○ 회신사항 : 불허 * 불허사유 · CCTV를 설치해야할 사유가 타당치 않을 뿐 만 아니라 동굴내벽을 훼손될 가능성이 큼	<불허>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신 청 인 : 서귀포시장 ○ 신청사항 : 남영호 위령탑 건립 ○ 신청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 *****번지(지정구역 안) - 남영호 위령탑 건립 : 높이 4m 내외 ○ 회신사항 : 불허 * 불허사유 · 위령탑 건립 예정지는 과거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던 지역이나 현재는 해식절벽의 붕괴, 추락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어 통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해안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침	<불허>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명승 제17호 부산영도 태종대	○ 신 청 인 :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허가사항 : 태종대 유원지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철거 및 증축 공사 < 철거대상 5동 > - 공익요원대기소 1동, 청소용역대기소 1동, 창고 2동, 공중화장실 1동 < 증축공사 1동 > - 건물 규모 : 지상 2층 - 주요시설 : 용역지원시설, 공중화장실, 창고 등 - 건물연면적 : 203.41㎡(61.53평) ○ 허가기간 : 2014. 4. 18 ~ 12. 31.	<허가>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 신 청 인 : 예천군수 ○ 신청사항 : 선몽대 일원 자연석 설치 ○ 신청위치 :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번지 - 자연석 : B 2.5m, L 4.5m, H 2.0m 1개 설치 ○ 회신사항 : 불허 * 불허사유 · 자연석 이전 장소는 나무식재로 복원해야할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지정구역외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불허>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장 ○ 허가사항 : 한탄강홍수 조절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 ***번지 등 21필지 - 이설도로 : 도로연장, 도로폭원 : 1차선 4m 포장형식 : 콘크리트 ○ 허가기간 : 2014. 4. 21 ~ 2015. 6. 30.	<허가>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협곡	○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장 ○ 허가사항 : 한탄강홍수 조절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번지 등 54필지등 21필지 - 이설도로 · 도로연장(시도23호선 0.29km, 부체도로#5 0.54km) · 도로폭원(시도23호선 8m, 부체도로 4m) · 포장형식(시도23호선 : 아스팔트, 부체도로 : 콘크리트) ○ 허가기간 : 2014. 4. 21 ~ 2015. 6. 30.	<허가>
허가	천연기념물	○ 신 청 인 : 한국환경공단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사항 변경 허가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666번지 1호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비상용 급속충전기 설치 ・설치장소 : 5개소(한라산 어리목 및 관음사 주차장, 비자림・산방산・천지연 주차장) ○ 허가기간 : 2014.2.24. ~ 2014.4.30. <변경허가 사항> ○ 충전기 바닥 면적 변경 등 - (당초) 1,600×1,700×400 → (변경) 1,700×1,100×400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 신 청 인 : 영광군 ○ 허가사항 - 사 업 명 : 소교량 설치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번지 1호 - 사업내용 : 소교량 설치 1개소(길이 5m, 폭 4.88m, 높이 2m) <변경허가 사항>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1.16.~2014.4.30. → (변경) 2014.1.16.~2014.6.30.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봉정암 주지 *** ○ 허가사항 - 사 업 명 : 봉정암 법당(적멸보궁) 개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번지 - 사업내용 : 봉정암 법당(적멸보궁) 개축 등 ・기존건물 철거 : 2동(선다실 12.45㎡, 노전 68.07㎡) ・법당(적멸보궁) 신축 : 1동(127.89㎡, 7.975m) * 한식목구조, ㄱ자형, 정면5칸, 측면3칸, 맞배지붕, 화강석기단 <변경허가 사항> : 진입로 개설내용 및 허가기간 연장 ○ 진입로 개설 및 등산로 정비 - (당초) 기존 진입로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관계전문가의 자문 받아 시행 - (변경) 진입로 개설(L 70m, W 1.2m),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등산로 폐쇄 45m, 등산로 정비 23m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1.20.~2014.12.31. → (변경) 2014.1.20.~2015.10.31. ○ 허가조건 - 석축공사는 전통석축기법으로 시공하되, 석축에 사용하는 자연석은 반드시 산석을 사용하도록 함 - 진입로 개설 및 등산로 정비는 기존 식생 및 지형 등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행	
	명승 제10호 삼각산	○ 신 청 인 : **라인(주) ○ 허가변경사항 : 허가기간 연장 * 사업명 : 이동통신 무인기지국 설치 ○ 변경사유 : 동절기 공사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기허가 사항> - 허가기간 : 2013. 10. 25 ~ 2014. 2. 28 <변경허가 사항> - 허가기간 : 2014. 3. 21 ~ 2014. 7. 31.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10호 삼각산	○ 신 청 인 : **라인(주) ○ 허가변경사항 : 허가기간 연장 * 사업명 : 이동통신용 공용기지국 설치 ○ 변경사유 : 동절기 공사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기허가 사항> - 허가기간 : 2013. 12. 2 ~ 2014. 3. 31 <변경허가 사항> - 허가기간 : 2014. 3. 21 ~ 2014. 7. 31.	<허가사항 변경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신 청 인 : 해인사 주지 ○ 허가변경사항 : 사업 규모 변경 * 사업명 : 해인사 원당암 석교설치 및 주변정비 ○ 변경사유 : 원당암 진입도로의 원활한 시야확보 및 동절기 결빙 등 안전사고 예방 <기허가 사항> - 석교(홍예)설치 →폭 7.0m 길이 20.0m, 석축 → 길이 108.60m <변경허가 사항> - 석교(홍예)설치 →폭 7.0m 길이 20.0m, 석축 → 길이 108.60m - 난간 및 홍예석 설치, 주변정비(식재 및 시설물 설치)	<허가사항 변경 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